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인관 앙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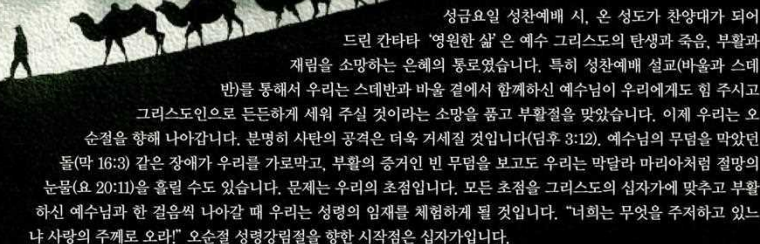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홍용 편집: 양재웅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걸음씩



성금요일 성찬예배 시, 온 성도가 찬양대가 되어
드린 칸타타 '영원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제림을 소망하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특히 성찬예배 설교(바울과 스테
반)를 통해서 우리는 스테반과 바울 절에서 함께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힘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돈독하게 세워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
순절을 향해 나아갑니다. 분명히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딤후 3:12).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막 16:3) 같은 장애가 우리를 가로막고,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보고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의
눈물(요 20:11)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초점입니다.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고 부활
하신 예수님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
나 사랑의 주께로 오라!" 오순절 성령강림절을 향한 시작점은 십자가입니다.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외)
버림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다
(로마서 11:25~36)

작정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이스라엘은 믿기를 거절하고 '율법에 의한' 만을 고집하
여 스스로 약속을 잃어 버렸다. 하지만 로마서 11장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을 버리신 것이 아님을 밝힌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에 아직도 남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를 시온에 놓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요, 의도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위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러
나 남은 자를 빼어 놓은 나머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로 생각하고 메시아를
거부하였다. 결국 자기 자신이 버림을 당하였다. 그렇다면 버림받음이 영원한가? 그렇
지 않다. 결코 멸망케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할 때에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 갔다.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구주가 되셨
고 약속은 완성이 되었다(롬 15:12). 그러나 이제 이 선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사용될 것이다(롬 11:25). 때가 되면 남은 자만이 아닌, 온 이스
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롬 11:26~27).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동안은 복음이야말로 자들에게는 거침돌이요, 이
거침돌로 인하여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택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
나님이 선택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다(롬 11:28).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는 바꿀 수 없다(롬 11:29).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믿지 않음을 통하
여 믿음으로, 넘어짐을 통하여 재생으로, 거부를 통하여 마지막 영적으로 간다. 하나님
께서는 같은 목표를 향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둘 사이에는 어
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방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
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대상이 되었다(롬 9:22~23). 반면 유대인의 경우에는 율법,
함례 등 호소할 것이 너무 많다(롬 9:4).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이스라엘은 '진노의 그
릇'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먼저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내려와야만 했다(마 8:11~1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들의 불순종에 내버려 두시고 넘어지도록 허락하셨
다(롬 11:31).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차별이나 차이점은 다 사라
졌다. 이스라엘의 버림받음과 구원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롬 3:22~24)은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옮기어지는 정점에서 외친 말씀이다.

인간 편에서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불순종한 자들로서 똑같다. 하나님 편에
서 볼 때에도 역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자비하심이다(롬 11:32).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보게 하시고, 바울은 그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다(롬 11:33).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하
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시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의 행위와 그 뜻을 알 자가 없다(롬 11:34).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까지도 그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누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모든 것
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승리를 거두신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를 가지
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청구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롬 11:35).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
대적인 뜻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군원이 되시며 만물의 목적이 되신다(롬
11:36). 아멘.

DEATH, LIFE & ETERNITY

*⁽¹³⁾But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²⁰⁾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are asleep.
⁽⁵⁷⁾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 Corinthians 15:13,20,57)*

When it comes to the concepts of death, life, and eternity there is only one real question: Did Jesus really resurrect? Today's Bible verses give us all the answers to these three events. After Jesus cleansed the temple in Jerusalem, the Pharisees asked him. "What sign do You show us as your authority for doing these things" (Jn. 2:18).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Jn. 2:19). The Pharisees characteristically misunderstood Jesus, just as the Corinthian church missed some fundamental points of the gospel. The Corinthian church wrote Paul a letter with some disturbing questions, and he responded to them in the writing of 1 Corinthians. The Corinthian church had a variety of problems, especially concerning their beliefs of the resurrection. Paul cleared up their confusion and answered their question about the resurrection in today's chapter. Without the answer that Paul gave the Corinthians, one will only find worldly enjoyment in the church. With this answer, one will certainly find heavenly victory.

Did Jesus really resurrect? The frightening prospect of no resurrection means the dead are perished and there is no hope for heaven. Paul told the Corinthians. "But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1 Cor. 15:13). This is a serious statement. It means the great sermons of Paul and all the apostles were in vain. It means we can write off all the great preachers of the ages. The Christian faith is useless. Paul emphasized.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then our preaching is vain, your faith also is vain. Moreover we are even found to be false witnesses of God, because we testified against God that He raised Christ, whom He did not raise, if in fact the dead are not raised. For if the dead are not raised,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worthless; you are still in your sins. Then those also who have fallen asleep in Christ have perished. If we have hoped in Christ in this life only, we are of all men most to be pitied" (1 Cor. 15:14~19). Jesus' resurrection is important, and the consequences of denying the resurrection are fatal. Faith is trust and dependence. Faith brings salvation and blessing. Paul said.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Rom. 1:16~17).

Did Jesus really resurrect? Paul told the Corinthians,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are asleep" (1 Cor. 15:20). There is no more 'if'. There is no doubt. Jesus rose from the dead! We need to shout in triumph that He lives. Gospel preaching is true. Faith in Christ is sure. Such faith truly brings salvation. It is dependable because all our sins are forgiven and our record is clear. Christians go to heaven when they die and their bodies will be resurrected when Christ returns. Paul emphasized. "For as in Adam all die, so al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But each in his own order: Christ the first fruits, after that those who are Christ's at His coming, then comes the end, when He hands over the kingdom to the God and Father, when He has abolished all rule and all authority and power. For He must reign until He has put all His enemies under His feet. The last enemy that will be abolished is death" (1 Cor. 15:22~26). Salvation is clear. Romans 6:23 says.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Jesus preache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Mt. 4:17). Paul testified. "I affirm, brethren, by the boasting in you which I have in Christ Jesus our Lord, I die daily" (1 Cor. 15:31). He told the Corinthian church, "Just as we have borne the image of the earthy, we will also bear the image of the heavenly" (1 Cor. 15:49). Our resurrection body will be like Christ's.

Did Jesus really resurrect? Paul told the Corinthians,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 Cor. 15:57). Jesus gives us victory. He gives us victory over death, from sin and the law, and over the grave! What a great message. Paul emphasized,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1 Cor. 15:58). Eternal life comes to everyone who believe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My dear friends, there is only one answer to the questions of death, life, and eternity. If you don't get this answer, then you get all kinds of horrific trouble, just like the Corinthian church experienced. If you do get it, then you receive the gift of eternal life. It's that simple. Please accept God's grace, love, and mercy that come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Amen. 

죽음과 삶 그리고 영원

⁽¹³⁾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²⁰⁾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⁶⁷⁾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13,20,57)



김성만 목사

죽음과 삶 그리고 영원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요 2:18).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바리새인들은 늘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몇 가지 복음의 기초를 놓치고 있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런 문제에 대해 바울에게 편지를 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그들에게 답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특별히 부활에 대한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그들의 혼란을 말끔히 없애고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단지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확실한 천국의 승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죽은 사람은 사라질 뿐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전 15:13). 이것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모든 제자의 위대한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세기에 걸친 수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의 글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고전 15:14~19).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부활을 부정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의존입니다. 믿음은 구원과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

그러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더 이상 ‘만약’은 없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복음은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신뢰할만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에게 대한 기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2~26). 구원은 확실합니다. 로마서 6:23은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전 15:49).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라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사망과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고전 15:58). 영생은 모든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삶 그리고 영생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만약 그 답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온갖 혼란스런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얻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을 받아 누리시라 바랍니다. 아멘. **M**

메시아의 죽음 29

고난 전의 이야기
(요한복음)

공관복음서(마태·마가·누가복음)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전의 기사를 거의 끝부분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1장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암시했고, 2장부터 17장까지 곳곳에 고난과 관련된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음을 기록하였다(요 2:13, 5:1, 7:10). 이 중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다(요 11:17, 12:1). 이곳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삼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본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요 11:47, 49, 53).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살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도의하였다(요 12:9~10). 그 이유는 간단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요 12:11).

사도 요한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와 그녀의 행동을 비판한 베산자 가롯 유다를 비교하여 기록하였다. 마리아는 당시 고가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였다(요 12:1~3). 이와 같은 고귀한 순간에 가롯 유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그녀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요 12:4~5). 이러한 행동은 주님의 때를 전혀 몰랐던 무지함의 결과였다.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헬라인이 찾아왔다(요 12:20). 이것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왕상 8:41)의 성취다. 바로 이 때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인 것이다(요 12:23).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당할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 때’를 아셨기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요 12:27).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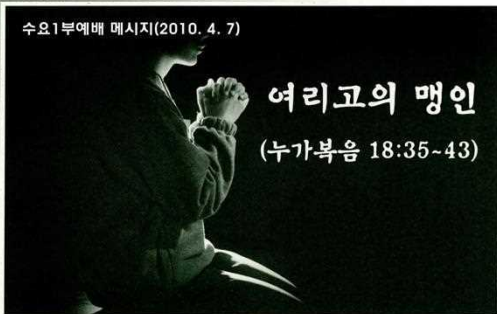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가롯 유다의 배신에 대해 기록하였다(요 13:10~11).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아 누구인지 알아라 그러나 내 때를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들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너희에게 일러 줄은 일이 있어 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요 13:18~19). 또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것도 기록하였다(요 13:38).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일련의 기사를 통해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실패가 아닌 승리라는 사실(요 16:1, 32~33)을 밝힌 뒤 고난기사를 기록하였다. 이는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요 17:1).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고난 전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요 1:29)를 볼 수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의와 영광’을 추구했던 종교지도자들, 가롯 유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람들 즉,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 당시 예수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인류구원이 아니었다. 이들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었다. 로마지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종교개혁과 풍요로운 삶을 꿈꾸었다. 이들의 중심에는 복음이 없었다. 부활의 명백한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들의 초점에 예수님은 없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 초점이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실족한다.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매순간 회개하사(시 51:17).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여 결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예배 메시지(2010. 4. 7)

여리고의 맹인
(누가복음 18:35~43)

예수님 사역의 종착지는 십자가였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마 17:1~2).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믿음’이었다(눅 17:6).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눅 17:11). 그곳에서 예수님은 열 명의 나병환자를 만나 치료하여 주셨다(눅 17:12~14). 깨끗함을 받은 나병환자 중 이방인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눅 17:16).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셨고, 그에게 영원의 세계까지 약속하셨다(눅 17:19). 이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인자의 날(눅 17:30)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하셨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이 ‘믿음’에 있음을 밝혀하셨다(눅 18:8). 그리고 또 다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외식자 아닌 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눅 18:9~14). 천국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며, 천국이 재물을 쌓을 것을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역에 대해 예고 하셨다(눅 18:31~33).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눅 18:34). 이처럼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여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절에 있던 제자들, 율법에 정통했던 종교지도자들과 경건한 유대인들보다 죄인취급을 받으며 소외받고 연약한 이방인들이 구원과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이 가진 것은 믿음뿐이었고, 그것이 열매였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방탄한 여리고에서도 일어났다.

●맹인의 조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 가에 앉아 구걸하다가”(눅 18:35). 여리고의 맹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너무나 대조가 되었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 곁에서 말씀과 이적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맹인이었다(마 15:14).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전 2:14). 거듭나지 않은 자는 맹인이

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고후 4:4)를 막아버린다. 그렇다면 맹인은 어떠한가? 맹인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거나 이적을 본 경험도 없다. 매일 구걸하며 살았던 맹인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그에게 있었던 것은 간절함이었다. 보지 못하였기에 발달된 청각으로 그는 때로는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맹인의 질문 여리고의 맹인은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를 들으며 많은 기대를 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리에게 물었다. “이 무슨 일이냐”(눅 18:36). 무리는 그에게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눅 18:37). 나사렛 예수! 그에게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라고 비아냥거리던 나다나엘과는 분명 달랐다.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전에 소문으로 들었던 다윗의 자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떠올렸다.

●맹인은 부르짖었다 맹인은 간절히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눅 18:38). 제자들은 맹인의 경이로운 행동을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간절하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눅 18:39). 그는 여리고 성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의 결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던 사람들은 종교지도자거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에 여리고 근처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을 흘러 듣지 않았다. 커진 들리는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놀라 외쳤던 무리(마 12:22~23)가 전해주던 이야기를 여리고의 맹인은 잊지 않고, 그들처럼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다. 지금 맹인에게는 오직 예수뿐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자비가 내려졌다(눅 1:50).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다(눅 18:40). 예수님은 맹인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맹인은 간단명료하게 간구하였다(눅 18:41).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예수님이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고 말씀하셨다(눅 18:42). 이것은 이방인 나병환자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했다(눅 17:19).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은 정상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다(눅 18:43). 구걸하는 맹인이었던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성공자를 찾아 행복의 비결을 찾아 해매는 이때, 여리고의 맹인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예수님의 제자들, 종교지도자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영적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 눈을 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자. 세상적인 탐심을 모두 두려워(골 3:1~2)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여리고의 맹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낮은 자가 간절히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절로써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멘.

망글까지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따라 선교하자

처음에 내가 선교를 너무 쉽게 본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선교를 가려나 말도 잘 못하고 선교의 사람들도 무서웠다. 하지만 3개월 동안 팀 훈련을 받고 기도원에도 다녀오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선교지에서의 첫 사역 때 인사도 못하고 선생님들의 시범만 보는 식으로 하였지만 하루, 이를 지나다 보니 주님의 도움으로 사람들을 보고 웃기도 하고 점점 자신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따라 선교하자'라는 구호는 참으로 나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다. 주님께 용기와 지혜로움을 기도한 뒤 사역을 할 때 용기를 얻어서 말도 걸고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원하셔서 선교에 나를 사용하신 게 참 좋았다.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면 선교를 계속 가야겠다.

류연주(충동부)

첫 선교의 기쁨

선교를 기기로 결심한 것은 학생회 아이들과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 처음 가는 선교에 나는 굉장히 긴장하였다. 선교 사역이 매우 힘들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었으나 기도로 준비하며 성실하게 훈련도 받았다. 마지막 4차 시사가 끝날 때에 합격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다. 합격 소식을 받은 후애야 드디어 '선교를 가는구나'라는 기쁜 마음이 들었다. 선교 가는 당일에 공항으로 출발하려는데 버스에서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선교지에 도착하였을 때 너무 기뻐다. 한편으론 우리가 과연 사역을 잘 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한 뒤 다음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무척이나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송으로 다음 날을 준비하였다. 우리는 부족한 언어 실력을 기도로 채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건가? 둘째 날은 첫째 날과 다르게 우리가 전한 복음을 현지인들이 잘 알아들었다. 심지어 우리에게 과일을 비롯하여 먹을 것도 나누어 주었다. 나는 정말 많이 기뻐다.

저녁 사역평가회 시간에 첫날과는 다르게 우리 팀과 다른 팀들 모두,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고백하였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였고, 남은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선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다음 번에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정태돈(고동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번 선교가 나에게는 첫 선교였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한 채 주님만 믿고 나아갔다. 현지인들을 만났을 때 준비한 전도 문장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웠지만 복음이 정말 전해지길 바라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전했다. 첫 사역을 어렵게 마치고, 우리는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팀 자체에서 기도하며 준비한 그림으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길 기도했다. 이번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다. 부족한 언어는 그림으로 보완하게 하시고, 아픈 지체를 통하여 부족했던 기도를 채우게 하시고, 앞일을 알지 못하고 어렵게 댈 발걸음에서 귀한 열매를 보게 하셨다.

둘째, 주님 안에서 팀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셨다. 어떤 지체는 친교로, 어떤 지체는 가진 재능으로, 어떤 지체는 찬양, 어떤 지체는 말씀으로... 주님께서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더 크고 풍성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사람이 빠지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겨보면서, 사역을 통해 그 말씀이 진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합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린다.

김효남(대학부)

와서 보라

지난 토요일, 갑자기 내리는 비로 교구 주변전도를 하지 못하고 교회주변전도를 하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파승에게 배 주님은 목사님을 통하여 유대의 관례적 관점에서 예수에 대해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하는 나다 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발림에 대한 말씀(요 1:46)을 주셨다. 와서 만나 보고 직접 본 뒤에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는 성숙한 권유에 끌려 나다나엘은 예수가 가까워진 친자인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해서 발림을 따라나섰을 것이다. 발림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와서 보라"고 권면한 그 사랑과 기쁨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변전도 지역으로 향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면서 전도지를 나눠 주었다.

얼마 전 회사 동료에게 나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했다. 돌아오는 대답은 웃음뿐이었다. 내가 체험한 주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쓸쓸하였다. 그러나 회사 동료에게 계속해서 "와서 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때에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다. "주님, 연합하고 자주 쓰러지는 자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림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금성(인수집사, 5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5일(목)~4월 23일(금)	6교구 1팀	김경배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7일(수)~4월 16일(금)	9교구 1팀	박춘근

십자가의 은혜로 동생했던 산수철기를 마치고 부활절(4월4~6, 22)까지 시작되었다!

지난 산수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보혈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웠다. 그 은혜 크 십자가에 걸리지 못할리니!



성금요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다!

2010년 4월 2일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 두 시간 전부터 분당 안은 북적북적 부산하다. 그 이유는 바로 성금요일 성찬예배 중에 드려질 연합 칸타타 최종 리허설 때문이었다.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일지않고 길을 나선 연합 찬양대원들의 발걸음 계속 이어져 예배 시작 전에 이미 찬양대석은 가득 찼다. 부부가 함께 칸타타에 참석한 사람도 몇몇 있고, 연세 지긋하신 예루살렘 찬양대원도 보인다. 이목과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개인이 지닌 음색이나 나이, 소속된 찬양대도 각기 다른 수많은 대원들을 하나로 묶고 통제하기란 분명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정열하고 준비하다 보니 얼마간 술렁이고 소란하다.

하지만 그 혼란도 잠시. 지휘자의 손이 율리감과 동시에 장내는 조용해지고, 찬양대원과 연주자 모두의 눈동자는 지휘자와 악보를 번갈아가며 따라가기에 여념이 없다. 수개월 반복적으로 연습했음에도 처음부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찬양 안으로 집중되고 소리가 점점 모아져가는 느낌이다. 긴장감이 감도는 리허설이 끝나고 디어 예배 시작. 끝이여 '영원한 삶'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다.

연주곡인 사곡을 시작으로 '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으리니 주 친히 보내 쉴테.' 때론 신비로운 천사의 목소리로, 때론 강한 선포의 메시지로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시간은 실로 감격이었다. 각기 다른 특색의 악기와 각기 다른 음색의 목소리들이 온전하 하나로 모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고난, 구원하심을 높이 찬양하였다. 중간에 모두 함께 부르는 찬양도 4곡이 있었는데, 그 동안 금요찬양집회를 통해 연습하였던 곡을 온 성도가 하나의 연합 찬양대가 되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13곡의 찬양을 모두 마치고 '바울과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된 말씀과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된 그 크신 사람과 은혜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네.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셨으니 그 은혜로 나의 삶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오, 그 은혜 감사 감사. 주여! 주여! 감사 또 찬양 감사. 오, 십자가!' 지금도 귀에 쫄쫄한 그 여운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난 얼굴 비추는 그날까지 쉼도토록 찬양을 드리기 원한다.

취재 | 한성하 기자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2010년 4월 4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진 울림

나의 친구들에게!

우린 지금 이저저것 고민 많은 우리들의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 그 가운데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헌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대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헌한 세상 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십자가 죽음에서 끝내버린 것이 아닌, 놀라운 신에 맞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겐 산 소망을 주셨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고, 또 사를 만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 그대도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부활절 되길 기도해!

김은구(대학부)

바울의 눈 비늘을 벗기신 분

그리스도인이므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따금씩 밀려오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종종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본을 보이지 못할 때, 혹은 내 행위와 생각이 성경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완전할 거란 생각이 들 때 어떤 무너지는 나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곤 한다. 이러한 죄의식은 특히 심하고 있는 청년부, 혹은 학교의 자그마한 캠퍼스 모임에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영혼을 심길 때면 더욱 심해진다. 조금이라도 신경써 주지 못하거나, 많은 조언들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라도 들려올 때면, 난 용서받은 자인가? 수시로 의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타락해 가는 것을 느낀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금요일 성찬예배를 통하여 바울의 이야기를 하라하셨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명하셨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리니 얼마나 세례를 받고."

세상이 좋아지고, 소위 말하는 '타종교인'들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그들이 자신의 성화(聖化)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습은 일곱 보게 된다. 참신, 면면수양하는 기분이 어릴 때부터 경전을 토해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 때론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기도 한다. 참 신

기하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난 할 수 있어"를 외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너희의 힘"을 강조하는 데 반하여, 오직 성경만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무릎에 함께했던 강도에게 예수님 역시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었다. 다만,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낙원을 허락하셨으며, 그의 죄를 사하셨다.

그것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죄 사함의 권세, 그 능력과 권세는 사랑을 이기고 열한 제자들에게 부활을 목도하게 하셨으며, 사울을 스데반으로 만드셨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아 갈수록 성령님은 나를 '그분의 힘'으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구약의 모세에게도 그러했고, 신약의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나와 우리에게 그러하신다. 진정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게 한 네 영안의 비늘을 벗기고, 바울로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길 기도한다. 또한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싶다. 아직도 내가 자리에 합당한 자인지에 대하여 고심하고 걱정하지만, 분명 지금도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승규(청년1부)

새가족양육부 3월 수로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구원받았다!

✠ 수로자까지 고백 1년이 걸렸습니다. 교회에 나오기까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만 가지 확실 것은 주님을 만난 후 생활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의 생활이 참 편안 애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서서히 변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주말에 출근을 해야 했던 직장도 이직을 하여 주말에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청년2부에도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식)

✠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분노와 불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록)

✠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너그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들 때 순간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생활하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스스로 죄인임을 항상 깨달아 겸손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배성자)

✠ 교회에 나와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주님을 섬기며 행복해 보이는 교인들 가운데 설이면서 애비 바이러스가 전이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에 가까이 가기 싫었던 예전의 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미래를 내다 보시는 주님, 강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주님, 그 주님이 강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경의 임재하심과 부활을 확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성준)

✠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유영준)

✠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을 소유했던 나 자신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마음 가지며, 우리 가족이 모두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진면)

장애(障愛)는 불편함이 아닌 주님의 '장애' (長愛, 깊은 사랑)이다 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996년 4월 저녁, 퇴근 후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중앙차선을 침범한 한 대의 차, 그리고 뒤 따라오던 또 한 대의 차가 나의 차를 향해 돌진했고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간 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후 나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찾자마자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 주세요, 나보다 더 위험한 사람 있거든 그분부터 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나 좀 살려 주세요."

유교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예수님 믿는 할마니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은혜를 주셨지만 세상 연락을 즐기고 죄악 가운데 지내며 주님을 잊고 지냈던 나였습니다. 그런 중죄인인 내가 눈물로 애원하며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친히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땅차와 같은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난 날 동안 주님을 떠나 죄악 속에서 살아온 것을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사고를 통해 눈 한 쪽을 잃는 등 육신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없었던 생령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할 때면 항상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납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에 속했던 나를, 죽음에 놓여있던 나를 살리시어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 세상을 택해 길을 떠났던 나와, 예수님을 모르던 아내,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주의 은혜로 모두 함께 천국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지도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아픈 곳이 점점 많아지나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현준(김사, 7교구)

♡ 새 가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32	이수진	12 초동2부	이영순(11)	350	하정준	2 청년1부	김은실(7)
333	주혜경	8 장년3부	홍현숙(8)	351	최진영	2 청년1부	남정숙(18)
334	윤삼태	24 장년3부	이옥자(10)	352	남상직	11 소망부	이화영(11)
335	조홍구	14 대학부	마한미(15)	353	김주희	16 청년1부	김희진(5)
336	이은영	17 장년1부	이시은(16)	354	박 영	6 고등부	안선희(9)
337	김이두	10 장년1부	강현희(7)	355	이민숙	15 장년2부	한영숙(11)
338	박성식	22 청년1부	김순광(14)	356	이원진	1 대학부	윤선환(1)
339	수리	25 외선부	황귀국(20)	357	유호정	19 장년1부	정미선(1)
340	사친	25 외선부	이득혜(5)	358	김희주	9 고등부	전하예(9)
341	부드수형	25 외선부	이명금(2)	359	김영하	16 장년3부	정순숙(13)
342	윤현섭	25 사랑부	이상연(5)	360	홍미자	14 대학부	김월분(10)
343	조병진	6 장년1부	김승희(17)	361	한민아	18 장년1부	김석재(14)
344	고요한	13 청년1부		362	김금선	10 청년1부	고진순(19)
345	정도희	1 중동부	김은숙(13)	363	정미영	20 청년1부	김종민(17)
346	조한희	22 청년1부	박진필(15)	364	조신복	20 장년1부	정진관(20)
347	박세광	3 장년2부	강인선(3)	365	한상권	21 청년2부	정진관(20)
348	이재홍	3 대학부		366	정혜영	21 청년2부	정진관(20)
349	이성순	19 장년2부	김학희(19)				

* 순교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Copyright © 2010 泰成印刷 Published by Gyeonghyun Church Press